메트로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제3043호 www.metroseoul.co.kr

대입 수시 미술 실기 216대 1 경쟁률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학년도 한양대 수시 미술특기자 실기 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학 측은 이번 미술특기자 전형 15명 모집에 3243명이 지원해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못 믿을 동국제약 '인사돌 플러스'

잇몸질환 치료제…효과 이어 허위·과장 광고 논란
임상시험 12주 60명 뿐, 식약처 "조사후 행정조치"

의약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전자는 의사 처방 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전제 아래 약국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입한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TV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중광고의 영향이 크다. '간 때문이야'의 '우루사'가 대표적인 예로 제약사는 모델이나 제품의 특징만을 부각시킨다. 이에 최근 그 효과와 허위·과장광고로 논란이 된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의 '인사돌'과 '인사돌 플러스'는 물론 치주질환 치료제의 현실과 허술한 보건행정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황재희기자 hee0@metroseoul.co.kr

최근 TV를 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가 잇몸질환 치료제다. 국내 치주질환자가 800만 명이라는 국민적 악명을 앞세워 건강치료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인냥 홍보하며 돈을 벌기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혈안이 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약"의 지위마저 잃어버린지 오래 전인데도 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말 동국제약은 국내 최초로 잇몸 겉과 속에 한 번에 작용한다며 잇몸약 '인사돌 플러스'를 출시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제품은 10년간의 기초·비임상·임상연구를 통해 개발됐으며 인사돌의 주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에 '후박나무 껍질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한다.

이 제품엔 후박나무 추출물이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주병원균에 대한 항균 효과와 항염 작용을 가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품도 전작인 '인사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위·과대광고 논란 커져 - 식약처 조사 중

사실 인사돌 플러스는 출시하자마자 구설수에 올랐다. 인사돌이 효과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재평가 지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제품 출시 후 곧바로 허위·과장광고로 지적받으며 소비자 혼란을 부추겨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회사는 인사돌 플러스가 인사돌보다 효과가 더 좋다며 대대적인 광고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산학협동을 통해 개발된 국내 최초 OTC(일반의약품)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고 제품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개량신약'은 전문의약품에만 사용되는 용어로 간단하게 말해 오리지널 신약을 업그레이드한 의약품이다. 즉 '개량신약'이란 용어 자체를 일반의약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 자료를 배포해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조사 후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회사는 1~3개월 광고 중단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약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OTC 개량신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이번 광고로 소비자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 역시 "제약업계에 입문한 후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사의 일원으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안전이 제일 우선? - 임상시험 고작 60명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약품의 기본은 안전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허가받을 때는 제품의 임상시험 자료가 안전의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인사돌 플러스의 임상시험을 보면 제품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취재 중 본지는 동국제약에 제품의 임상시험 자료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자료에는 단 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12주 연구 결과가 전부였다. <2면에 계속>

北 김양건 "김정은 건강 문제 없어"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4일 이뤄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남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류 장관은 "제가 김양건 비서와 차로 이동하면서 북에서 김정은이 불편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건강이 어떠냐고 했더니 김 비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4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인사말을 전했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김정은 메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길지 않았다.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는 그 한마디로 전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전혀 얘기가 없었다"면서 "대화의 형식이나 내용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향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

/윤다혜기자 ydh@

남북 '대화 모드'로 바뀌나

국감 앞두고 분주한 국회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국회 한 상임위 관계자가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못 믿을 동국제약 '인사돌 플러스'

<1면에서 계속>

이 회사에 따르면 회사는 만성 치주염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SRP(치석제거술과 치근면활택술) 시술 후 12주 동안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초기(Baseline)에 비해 유의한 임상지표 개선이 확인됐다. 임상지표인 ▲치수낭 깊이 ▲임상부착 수준(치아 표면에 치수 질환을 일으키는 플라그 등의 부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은열구액(치아와 잇몸의 경계면에 형성된 작은 틈인 치은열구에서 세균으로부터 잇몸을 지키는 삼출액) 개선이 관찰됐다.

임상시험 결과를 떠나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의약품보다 안전이 중요한 일반의약품의 임상연구가 고작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것도 10년간의 기초-비임상-임상시험과 산학협력을 통해 회사가 꾸준한 연구를 지속했다는데 말이다.

게다가 기존 제품에 다른 성분이 추가된 만큼 임상연구는 두 성분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안전성 효과를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했어야 했다.

또 2011년 인사돌 복용 환자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이 회사가 인사돌의 효과와 안전을 입증하는 데이터 확보에 열을 올리며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해온 이는 실적과는 상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추가 성분 복용 효과 물음

더욱이 인사돌 플러스의 추가 성분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롭게 첨가된 후박나무 추출물(honokiol-magnolol)의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국제약은 논문을 근거로 항염효과를 강화한다는 이들 성분이 치과에서 잇몸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과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논문에 산입된 방법 등을 거론하며 회사가 비교한 부분에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클로르헥시딘을 치아 소독용으로 가글할 때 사용한다"며 "제품은 경구용 제제로 섭취하는 의약품이라 직접 비교 대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제품이 바르거나 가글용으로 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논문을 비교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이 회사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단순하게 효능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은 환자의 구강조직을 채취해 실험관(in vitro) 실험만을 진행한 것 뿐이라며 후박나무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구강 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얼마나 죽을 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또 이 회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장소와 기능에 도움이 되고 충치와 치주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어 오래 전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약재와 치료 사용돼 왔다는 후박나무 추출물의 한의학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 역시 생략됐다.

보건의료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출시한 것은 단순히 판매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재용 기자 hsu 38@

서울메트로, 오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서울메트로는 6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에는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캠페인은 서울메트로 모든 역사에서 진행되며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E/S E/V 휠체어리프트 등 편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무재해 릴레이기 전달식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달 4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4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이어지는 첫 평일 날이 안전점검의 날이 된다.

Issue&View 2차 고위급 접촉 합의

/조현정 기자 cyclone@metroseoul.co.kr

"2시간 회동 화기애애" 북한 고립국면 탈피용 '전시성 이벤트' 해석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권력실세가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지 주목된다.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인천을 찾았다. 북측의 제안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하루만에 이뤄진 '깜짝 방문'이다.

양측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남북 대화를 이어간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정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정치국장을 필두로 한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대표팀이 지단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둔 이번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북한의 권력서열 2위로 부상한 황 정치국장을 파견한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청와대도 북한의 이례적인 움직임에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황 총정치국장의 카운터파트로 내세우는 등 '맞춤 대응'에 나섰다.

우리 측 대표단이 박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할 용의를 북한 고위대표단에 전달한 것도 이번 북한의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의 대화 국면 전환점 마련과 더불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인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면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가지 문제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대표단 파견을 확대 해석해 남북관계에 급격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조성된 외교적 고립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최고위층 인사를 파견하는 '전시성 이벤트'를 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1년 [illegible] 기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illegible]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붕어빵 국감 안 된다"

모니터단 "무분별한 증인 채택도 막아야"

"몇 년간 똑같은 질문과 답변, 똑같은 시정조치 사항이 다오는 '붕어빵국감'을 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7일부터 20일간 역대 최다인 672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될 국감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5일 "이번 국감의 준비 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국감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바람에 자료요구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등 준비는 오히려 더 충실했다"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감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정조치를 전담하는 곳이 없으니 본회의 의결사항인데도 엉터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의원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증인을 마구잡이로 신청하면 전직 보좌관이었다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국회 담당관'으로 취업한 이들이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로비를 벌여 증인에서 제외하거나 질문은 약화시키는 일을 하느라 요즘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국감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신청됐다가 빠진 경우를 특별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인신청을 막기 위해 증인신청 요건을 좀더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다혜 기자 yd@

"4급이상 공무원 명퇴수당 6837만원"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이 1인당 받는 명퇴수당이 평균 6800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33개 중앙부처의 명예퇴직 자료 4년반 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개 중앙부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을 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은 총 12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837만원 꼴이다.

직급별 명퇴 인원은 ▲고위공무원 526명 ▲3급 160명 ▲4급 1082명 ▲검사직 112명 등이다.

직급에 따른 1인당 평균 명퇴수당액은 ▲고위공무원 8821만원 ▲3급 6523만원 ▲4급 5216만원 ▲검사직 6821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윤다혜 기자

여성 1백명 중 4명 임신 어려워

철저한 산전 검사·관리만이 건강 출산 가능

우리나라 20~30대 여성 100명 중 4명은 임신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생리불순과 관련된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이 2008년 35만8000명에서 2013년 36만4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히 20~30대 여성 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여성 인구 10만명당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4298명으로 가장 많고 30대(3347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0~30대 여성 100명 중 3~4명은 임신이 힘든 상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0~30대 미혼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무월경 등의 주요 원인은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스트레스, 체중 감소에 의한 시상하부 장애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시안게임 마치고 떠나는 북한선수단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폐막한 가운데 북한선수단이 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버 명예훼손 엄중 잣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형 3배 늘어나

올해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가 예년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판결을 선고받은 전체 1274명 가운데 9.5%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올해 3분기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비율상 예년의 3배 수준이다. 2012년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9명(3.4%)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58명(3.0%)으로 비슷했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선택은 개별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고,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변화 원인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에 명예훼손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다혜기자 ydh@

'이혼 요구' 아내 살해 70대 징역 12년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4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부인 B(66)씨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게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69년 결혼한 A씨는 B씨가 결혼 45년만에 황혼이혼을 하자고 하자, 거절하고 함께 살자고 했지만 부인의 거듭된 거절에 배신감을 갖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다혜기자

법원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사법기관 63% 기준 미달

사법부가 오히려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기관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각급 법원 등 사법부내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 1만6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총 372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37개 기관 중 이처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3%인 23개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못 미쳤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서울중앙지법은 1.45%였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불과했다. /송다혜기자

육·해·공사 출신 장교 조기 전역 급증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5년차 전역율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관 5년차에 전역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2004년 4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46명, 지난해 65명, 올해 66명으로 크게 늘었다.

장기복무 요원인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최소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임관 5년차와 10년차 때 전역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복무 불안감과 복지여건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복무 의욕이 감소해 5년차 전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송다혜기자

초콜릿 공장 야외 전시관으로

metro Russia

'사랑의 키스' 등 눈길

러시아 모스크바의 초콜릿 제조공장 '붉은 10월'의 공장 외벽이 야외 전시관으로 변신했다. 거리 예술축제 '아트사이드 2014'의 일환이다. '공장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을 소개한다.

◆ 사랑의 키스

키스는 시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공감되는 주제다. 남성과 여성이 입을 맞추기 직전의 모습이 전통적인 팝아트 스타일의 모자이크 기법으로 그려졌다.

◆ 새의 열정

러시아인이 뜨거운 열정이 한 마리 새로 표현됐다. 붉은색과 노란색 깃털을 가진 새의 머리 위에 있는 푸른 구슬이 인상적이다.

◆ 작가들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고골과 안톤 체홉도 만나볼 수 있다. 고골과 체홉의 얼굴 표정은 벽돌의 딱딱한 질감과 어우러져 진지하게 표현됐다.

/마리나 우쿠세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metro France

프랑스 파리 시청이 환경보호를 위해 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을 검토중이다.

안느 이달고 시장은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안은 대형 마트에서 작은 슈퍼까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리 시의회는 이번달 노점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안느 이달고 시장은 취임 이후 파리의 환경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생물 다양성 법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그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엘상 마셀록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IS '패배 뒤 참수' 작전

잔혹한 동영상 공개 통해 선전 활동… 두달 새 9차례 이상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서방 국가에 군사적으로 밀리는 경우 인질 참수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S는 인질 참수 동영상을 8월 중순 이후 9차례 이상 공개했다.

첫번째 서방 인질 희생자인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참수 동영상은 지난달 2일 공개됐다. IS가 이라크 북부 아메를리에서 패한 지 이틀만이다. 영국 인질 데이비드 헤인즈의 참수 동영상은 미국이 하디타댐을 공습하고 며칠 뒤에 나왔다. 영국인 인질 앨런 헤닝의 참수 동영상도 미국이 시리아 내 IS 공습을 시작한지 일주일쯤 지나 공개됐다. IS는 쿠르드족과의 전투에서 밀리면 쿠르드족 인질을 참수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관리들은 IS가 자신들의 패배를 선전으로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수 동영상을 통한 선전 활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새 대원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IS를 겨냥한 미국의 공습이 계속되면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IS는 최소 2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약 20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다.

/조선미 기자 ssr inna@metroseoul.co.kr

민주적으로 합시다! 홍콩 몽콕에서 4일(현지시간)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반대파 간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한 남성이 여성 시위자를 공격하려는 현지인을 막아서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친중 단체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날 렁춘잉 행정장관은 정부청사 주변을 점거한 시위대에 6일 오전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철수하라고 경고했다. /AP 연합뉴스

온타케산 사망자 51명 태풍으로 수색 장기화

4일 일본 온타케 분화 희생자 수색 작업에서 심폐정지 상태인 등산객 4명이 새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발생한 온타케산 분화로 목숨을 잃은 등산객은 51명이 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소방 당국은 자위대 등 1000명의 인력을 동원해 행방불명자들을 계속 찾고 있다. 하지만 악천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현재 일본 열도로 접근중인 제18호 태풍 '판폰' 때문에 당분간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수색 작업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선미 기자

"실버경제서 미래 성장동력 찾아야"

시장 선점 위해 고령자 특화 의료·교육·레저·금융개발 급선무

금융가 사람들

■ 조호정 현대경제연 선임연구원

독일의 한 슈퍼마켓. 여타 상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곳에는 몇가지 특별함이 있다.

다른 매장보다 20cm 낮은 선반 높이와 카트 한편에 부착된 돋보기, 그리고 혈압계를 갖춘 휴식코너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노인 전용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독일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Edeka)50+'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한 변화만으로 오픈 첫해 연매출이 50%나 늘었다.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新성장동력인 '실버 경제(Silver Economy)'를 구축한 것이다.

'실버'에 대한 경제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버 경제'는 고령자를 복지 공급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외 실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 12.2%를 기록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실버 경제의 기회와 시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원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이나 고령화를 위험요인으로만 바라보고 수요 측면의 기회 요인은 간과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을 거울 삼아 고령 관련 신규 일자리 증가와 연령대별로 다양한 소비 증대 등 긍정적인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는 독일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실버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특히 "독일 고령자는 소득의 80% 이상을 소비하면서 최대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원격의료부터 스마트 홈 등 고령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생활을 보조하는 '케어로봇'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전구,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한 '푸드젯 3D 프린터기', 은퇴자 특화 금융과 레저까지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고령친화 서비스와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실버 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라며 "국내외 실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고령자에게 특화된 의료와 교육, 레저·금융 등을 개발해 국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정 은퇴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도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은퇴 후 소득을 보존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해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waysa0208@metroseoul.co.kr

3일 오전 효성 최고경영진과 베트남 서기장이 만나 베트남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효성 제공

효성 최고경영진, 베트남 당서기장 환담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등 효성 최고경영진이 3일 아침 서울시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베트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쫑 당 서기장에게 "베트남 정부의 지원 덕분에 효성의 글로벌 사업이 진일보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 효성 최고경영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고압변압기 및 차단기 등 중전기기 사업을 비롯해 건설 및 환경 분야의 기술 역량 등을 소개하고, 베트남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쫑 당 서기장은 "효성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당부했다.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9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년짝 공단 지역내 75만㎡(22만6000여평) 부지에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나이성내 700여개 한국 기업 중 최대 규모다.

효성 베트남 법인은 세계 1위 제품인 스판덱스 원사와 섬유 타이어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섬유타이어코드는 국내와 중국의 생산량을 넘어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판덱스 분야도 지난해부터 증설을 진행해 올해내 5만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스틸코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자재 부문의 비드와이어, 테크니컬얀 등도 생산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해부터 베트남에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지속적인 생산 시설의 신·증설을 통해 베트남 총 수출액의 1%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미곤기자 kmg@

이수만 SM 회장 부인 별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62·사진) 회장의 부인이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는 지난 2012년 12월 소장암을 최초로 발견해 이듬해 1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부인을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고 설명했다.

장례는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렀으며 지난 2일 발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호기자 solanin@

특허청 '낙하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박완주 의원 "철저 검증 필요"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중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실·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다.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면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매해 발주한 180여건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늘어나고 있다.

발주된 각종 사업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해 낙하산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에도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 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en@

market index <2일>

- 코스피 1978.18 (-15.38)
- 코스닥 569.54 (+2.85)
- 금리 2.25 (+0.02)
- 환율 1060.90 (-2.10)

클라우드화 지원 LG유플러스는 광고, 디자인, 인쇄/출판 전문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화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 제공

국민연금 1조6천억 손실

국민연금이 10대그룹의 주식에 투자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 투자의 평가액은 9월 말 기준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48조2000억원보다 3.3%(1조6000억원) 줄었다.

SK그룹 상장사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을 올렸다. 투자 평가액은 5조7397억원에서 6조4449억원으로 9개월간 7052억원 늘어났다.

또 LG그룹 상장주는 주가 투자와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4조8019억원에서 5조3869억원으로 5850억원 증가했다. /배상은기자 [illegible]

로또복권 (제61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0	25	30	42	43	1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2,881,326,22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3,357,894
3등	5개 숫자 일치	1,518,72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수송동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9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장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34 ~ 5

독자센터 02)721-[illegible]

2002년 5월 31일 창간 / [illegible]

'도급계약' 간접고용 시정될까

통신업계 '설치기사 근로자 아니다' 이유로 권리 못 누려…비판

Issue & View 노동부 판결 후폭풍

/정[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통신기업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조 결성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의 설치기사 간접고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업계는 실질적인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고, 협력업체가 다시 설치기사와 개인 도급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특히 설치기사 노조가 고용승계 보장,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해고 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 노조에 강경한 태도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해 왔다.

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업무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1인 사업자처럼 일했다.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도 누리기 어려웠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작업중에 다치면 사고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협력업체 아래에 또다른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 형식의 고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기사들은 임금과 단체협상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다. 씨앤앰과 티브로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올해 생겼다. 문제는 통신사와 케이블TV업계가 노조에 일방적인 해고 통지, 직장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 결성을 주도한 기사에게 일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해고처리했다. 티브로드와 씨앤엠은 지난 여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고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선언하거나 협력업체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노조원인 기사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이후 수개월째 각 회사의 사옥 앞에서는 해고기사를 중심으로 시위와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들은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설치기사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9일 노동고용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설치기사 일부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노동부 "실질적 업무 형태"

최근 노동계에서 협력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월부터 한달간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9개 업체의 설치기사 469명 가운데 332명이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도급 계약에 따라 업무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보수의 성격,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 미지급 금품 4억9142만원을 지불하고, 임금 및 근무 체계를 정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원청업체인 통신사에게는 인력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방안 ▲업체 변경시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소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며, 나아가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까지 촉구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 쪽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케이블TV업계 전반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모든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직장폐쇄와 불법성, 장기 해고사업장 등에 대해 환노위에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자기 '훈민정음' 도자기 출시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뜻을 기리기 위해 한국도자기가 훈민정음 도자기를 출시했다. /연합뉴스

본사 옆 분양, "신경 쓰이네…"

임직원 관심 집중 → 마감재·경쟁률에 민감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3차를 재건축해 공급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가 최근 평균 57.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강남에서의 래미안 브랜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어떻게 짓더라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그 어느 때보다 상품 구성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전용면적 139㎡ 유닛을 두 번이나 뜯어 고쳤다. 일반분양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관심이 쏠아지자 전략적으로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단지 부지가 삼성타운에서 내려다보일 뿐 아니라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삼성 직원들의 주거지가 될 확률이 높은 만큼, 회사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챙기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도 송도에서 신규분양을 준비할 때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송도 1-3공구 내 미국 게일사와 함께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5.77㎢ 규모의 국제업무단지(IBD)를 개발 중이다. 아파트 분양이 단순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송도 개발의 과정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앞으로 송도에 새로 선보일 아파트는 지금까지의 공급량과 비슷한 1만여 가구 수준이다. 개발이 절반가량 이뤄진 상황에서 앞서 분양한 평면, 마감재, 분양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향후 공급될 단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연[illegible]기자 [illegible]

KB금융 차기 회장 '내부냐, 외부냐'

1차후보군 중 김옥찬·윤종규·이동걸 급부상… 16일 4명으로 압축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서 차기 회장에 누가 선임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군 84명 중에서 1차 후보로 8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이사부행장 ▲양승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KB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와야 한다는 주장과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가 와서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초반 판세는 내부 출신으로는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외부 출신으로는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내부 출신인사중 김옥찬(58) 전 부행장은 1982년 국민은행에 들어와 30여년을 'KB맨'으로 지냈다. 영업과 재무 분야 등에 정통하며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윤종규(59) 전 부사장은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다. 부행장으로서 재무·전략 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KB 내부에서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B금융지주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을 맡아 회추위 구성원인 사외이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강점이 있다.

교수 출신으로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낸 김기홍(57) 전 대표는 2007년 지주사 설립기획단장을 맡아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을 짰다.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2008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KB의 초대 수장을 맡았으나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 문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아 중도하차했다. 황 전 회장은 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조흥은행 부행장, LG카드 부사장, KB금융지주 부사장 등 다양한 금융권 경험을 쌓았다.

KB금융그룹에서는 내부 출신이 선임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노조가 내부 출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선임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부 출신 후보는 이동걸(66)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이 단연 앞서고 있다는게 금융권 시각이다. 그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은행, 증권, 캐피탈 등을 두루 거쳐 금융그룹 수장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온화하면서도 꼼꼼하고 철저한 일처리가 돋보인다는게 주변의 평이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국내 금융권에서 사상 초유의 은행장 5연임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씨티은행의 실적 부진과 현직 타 은행장이란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는 금융권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KB금융 회추위는 1차 후보에 대해 평판 조회를 하고 오는 16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이달 말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다음달 2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안상미 기자 ssahn@metroseoul.co.kr

카드사 "10조 웨딩시장 잡아라"

혼수부터 준비 全단계에 다양한 혜택 제공

싱글들에게는 배우자를 추천해주고 커플들에게는 결혼준비와 결혼자금까지 빌려주는 곳.

이는 웨딩전문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을의 신랑·신부를 잡기 위해 나선 카드사의 부대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에서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혼수부터 피부관리, 결혼식장과 신혼 여행, 웨딩특화카드에 이르기까지 결혼 준비의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 관련 시장만 10조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가을 웨딩시즌은 카드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먹거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8월 LG전자·한샘·듀오웨드·한진관광과 손잡고 웨딩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플러스클럽'을 열었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특별한도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혼수나 웨딩 상품을 구매시 금액대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결혼축의금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도 'KB국민카드 라이프 플라자'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 준비부터 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결혼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결혼자금을 위한 신용대출과 부동산 정보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삼성카드 역시 결혼을 준비 중인 이들을 위해 결혼준비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웨딩서비스 '오픈웨딩'을 제공하고 있다.

'오픈웨딩'은 웨딩플래너 없이도 각 분야별 검증된 우수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으며 삼성카드로 이용 시 제휴업체별로 최대 50% 현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결혼을 준비 중인 싱글 회원이라면 커플매니저가 상담을 통해 배우자도 추천해준다. 앞서 삼성카드는 가연결혼정보, 듀오결혼정보 등 결혼정보서비스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삼성카드 회원이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시 10% 할인 혜택과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도 있다. 롯데카드의 가연 롯데카드는 가연결혼정보의 컨설팅 비용을 20% 할인해주며 가연웨딩의 웨딩패키지(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를 20만원 할인해 준다.

롯데카드는 또 웨딩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웨딩컨설팅 서비스와 웨딩패키지 할인, 웨딩플래너 동행서비스,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신한베트남은행-주 호치민 총영사관 업무협약식 허영택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오른쪽부터 4번째)과 오재학 주 호치민 총영사(오른쪽에서 3번째)가 복수비자 발급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김연배號 출범… 위기 극복 할까

한화생명, 체질 개선 위해 구조조정 뒤따를듯

한화생명이 한화그룹의 2인자 김연배(사진) 부회장을 선장으로 맞아 새 출발했다.

그는 IMF외환위기 때 그룹 구조조정을 주도했고, 최근엔 그룹 비상경영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김승연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 실세다.

이에 저금리 지속과 후발주자인 농협생명의 급성장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한화생명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대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보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도 타 생보사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 기준 6% 이상의 높은 금리를 돌려줘야 하는 '역마진 고금리 상품' 비중이 38%에 달한다. 반면 현재 한화생명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4.9%에 불과해 운용 이익 중 대부분을 고금리 확정형 상품 보험금으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이다.

상반기(1월~6월) 순이익도 2053억원으로 지난해 2669억원 대비 23% 이상 감소했다.

올해 1분기(3월~6월) 시장점유율도 12%를 기록해 농협생명(14.1%)에 업계 점유율 2위 자리를 내줬다.

이같은 위기 상황을 의식, 한화생명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5개 본부 9개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명의 전무를 보직해임하고 상무급 이상 임원 수십명도 보직을 없애거나 좌천시키는 등 체질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부회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는 사내 방송과 e메일을 통해 취임식을 대신하는 등 기존 문화를 혁파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과 한화생명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과 역량이 있다"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 초일류 보험회사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승덕기자 [illegible]

고배당주 관심 커진다

새 배당지수 출범 기대감… 기업銀·메디톡스 등 눈여겨볼만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배당지수의 출범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 속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증권가에서는 앞다퉈 고배당주 선별에 나섰다. 새로운 지수가 종목 편입 기준을 기존 시가총액에서 배당수익률로 확대했으므로 고배당주일수록 편입 가능성이 높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새 배당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배당지수가 출범하면 연말까지 이를 활용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번 지수는 미래배당지수·배당수익지수·우선주배당지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모두 포함하는 지수를 합하면 총 4개 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존 한국배당주가지수(KODI), 코스피200고배당지수의 편입 종목 배당수익률이 점차 높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거래소 측은 정부의 배당 유도 정책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수급을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은 지난 16거래일간 1조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코스피지수는 석 달여 만에 2000선 붕괴 후 1970선 후반으로 밀려났다.

미국의 출구전략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도가 높은 측면도 작용했지만 최저 수준의 배당수익률도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의 리스크를 보완할 만큼 기업 이익 성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수익률마저 투자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증권가는 이런 추세에서 배당주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으며 증시 전문가들도 고배당 종목 찾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배당수익률 4~8%를 유지하면서 기업 이익 흐름이 양호한 10종목으로 덕양산업·KCTC·KG케미칼·YBM시사닷·남영비비안·텔코웨어·한네트·한국기업평가·동원에스피·네오티스 등을 꼽았다.

장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더 각별하다"며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맞물려 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한달여간 기업은행·메디톡스·우리투자증권·GKL 등에 대해 배당확대 기대감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코스피200고배당지수가 이미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질 여력이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현정기자 hjk.m@metroseoul.co.kr

전순이 주부 경제학

신발 벗는 식당에 간다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모임이 있는 날이면 지독한 신발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장생이 발달한 발바닥에 땀이 나는 현상이야 당연하지만, 신발 벗기가 꺼려질 정도라면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발을 청결하게 하고, 발 피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향균제가 첨가된 비누로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스프레이나 파우더를 뿌려주면 보송보송한 발을 유지할 수 있다. 발바닥이나 뒤꿈치 쪽의 각질도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외출시 신었던 신발은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신발만 잘 건조해도 냄새제거 뿐만 아니라 살균효과까지 볼 수 있다.

신문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발 안에 습기가 차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 이 때문에 신발 안에 신문지를 뭉쳐서 보관하면 습기와 냄새를 잡을 수 있다. 냄새뿐만 아니라 신발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줘 활용도가 높다.

알코올 솜으로 신발 안쪽을 골고루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알코올이 신발 속의 악취를 날려주기 때문에 알코올 솜을 바른 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 보관하면 좋다.

녹차티백 역시 방향제 역할을 한다. 신발의 냄새를 없애주고 말린 녹차잎을 신발 깔창 아랫부분에 깔아주면 냄새 흡수에 효과적이다.

청바지를 활용해 발 냄새를 없애는 방법도 있다. 청바지 깔창을 신발 속에 대어주면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을 잘 시켜줘 발 냄새가 나는 것을 막는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을 신발 속에 넣어두면 탈취에 효과가 있다. 10원짜리 동전은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세균을 잡는 일을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한달에 한두번 신발을 세탁하고, 세탁시 베이킹소다를 넣어주면 신발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다.

/유선진기자 mei@

삼성생명 드럼클럽 중학생 아시안게임 폐회식 축하 공연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사랑 나눔 세로토닌드럼클럽 의 200여 명의 중학생들이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에서 모둠북 공연을 선보였다. 드럼클럽 학생들이 3일 폐회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주식펀드 수익률 2% 하락

채권형펀드 0.31% 상승

지난 한주 코스피지수 급락에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2% 넘게 하락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2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2.12% 하락했다.

개별 상품별로는 저평가된 주식에 레버리지식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골드적립식 펀드가 한 주간 1.62% 상승하며 성과 최상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국밸류10년투자장기주택마련 1 (C)" 펀드와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 1 종류F" 펀드가 각각 0.49%, 0.36% 수익률로 성과 상위에 자리했다.

반면 증권 업종이 급락하면서 KRX 증권지수를 추종하는 삼성KODEX증권주증권상장지수 펀드가 –8.40% 하락하며 주간 성과 최하위를 차지했다.

삼성KODEX조선주상장지수 펀드와 삼성KODEX에너지화학상장지수 펀드도 각각 6.72%, 6.29%로 부진했다.

반면 국내 채권시장은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증가하며 한 주간 강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채권펀드는 채권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한 주간 0.31% 상승했다.

특히 KIS 국고채 10년 지수 일간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는 우리KO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 펀드가 2.32%의 수익률로 주간 성과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 펀드와 삼성ABF Korea인덱스 (A) 펀드가 각각 1.18%, 0.74%의 수익률로 뒤따랐다.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초단기채권 펀드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중 초단기채권펀드인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상장지수 펀드와 하나UBS 4 펀드가 0.04%의 동일한 수익률로 성과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투자KINDEX단기자금상장지수 펀드도 0.05%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현철기자 h.kim@

뱅크월렛 카카오, 내달초 서비스 개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10만원까지 송금 결제가 가능한 뱅크월렛 카카오가 11월 초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하고 국내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만큼 소액 송금이나 결제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의 보안성과 약관 심사를 완료하고 국내 모든 은행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송금한도와 수취한도를 하루 5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청소년 간에 송금거래도 차단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카카오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비스 운영시 발생하는 민원은 은행과 카카오가 공동 처리하도록 했다.

/김형석기자 khs84@

단통법, 휴대폰 유통점 죽이나

"아주 보조금 대란 일어났을 때만큼 손님이 몰리네요."
-9월 30일 서울시청 근처 한 이통사 대리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로 파리만 날립니다."
10월 2일 신림동 한 이통사 대리점.

소비자 관망세 장기화 전망 · 고객 크게 줄어 '울상'

지난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본격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휴대전화 보조금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고객이 급감하자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휴대전화 유통업체(대리점·판매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과 30일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가 각각 5만7107건, 5만318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이 901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73명, 228명의 가입자 순감을 보였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예견됐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서울시청 근처 한 이동사 대리점. 이 곳엔 점심시간을 틈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이들로 붐볐다. 대리점 직원들도 고객 상담을 하는 한편, 새로운 손님 맞이에 한창이었다. 특히 한 직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많아 개통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따 방문해주세요"라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직원은 "오전에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리더라"면서 "언론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공짜폰이 사라지고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단통법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기위해 어제와 오늘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광화문 근처 또다른 대리점에선 휴대전화 교체 의에도 상담하는 고객들이 잇따랐다. 이 대리점을 찾은 한 고객은 "갤럭시노트4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려 했는데 단말기가 없어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면서 "오늘 가입이 가능했다면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달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할인 혜택이 줄어 10만원 이상 더 비싸게 사게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손님이 몰리던 분위기는 다음날 곧바로 달라졌다.

지난 2일 신림동의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손님도 끊겼다"면서 "정말 단통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리점주는 이어 "결국 어딘가나 휴대전화를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각 지역에 휴대전화 유통점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점 간에도 경쟁이 사라지면서 고객들도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하고 유통점주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에서도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명 휴대전화 구입 관련 커뮤니티에 "단통법은 결국 전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들었다"면서 "과연 이번 단통법이 누굴 위한 것인지, 정부 당국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게임사 사장은 IT주식 부자

게임회사 사장님들이 IT주식 부호 순위를 사실상 싹쓸이 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김범수 의장의 보유 상장주식 가치는 2조9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김의장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주식지산 평가액 1조2309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1위에 등극했다.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은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합병과 동시에 하루 만에 5.58% 오르면서 주식자산이 2조원대로 불었다.

IT 주식 부호 3위에는 박관호(41)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장의 상장주식 평가액은 3477억원으로 조사됐다.

3위이긴 하지만 조만장자 인 1·2위와는 격차가 크다.

이재웅(3087억원) 다음 창업자, 김택진(2838억원) 엔씨소프트 대표, 이준호(2246억원)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뒤를 이었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와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각각 2174억, 1268억원으로 집계돼 7·8위를 마크했다.

/세종=기자 [illegible]

가을철 별미 홍시 맛보세요 5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붉은 주황빛이 식욕을 돋우는 가을철 별미 홍시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판매, 10대 중 3대는 SUV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5사의 상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판매 대수는 9만4834대로, 지난해 9월 8만5896대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SUV는 2만7688대가 팔려 29.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9월보다 6.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SUV 판매 비중은 지난 7월 24.8%에서 8월 25.7%로 올라선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SUV 호황은 기아자동차의 신형 쏘렌토와 르노삼성자동차의 QM3가 이끌었다. 지난 8월 하순 갯선을 보인 올 뉴 쏘렌토는 9월 926대를 시작으로 지난달 6353대가 팔리며 국내 SUV 판매 1위에 올랐다. 신형 쏘렌토는 현재 대기 물량이 8000여대에 달해 당분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르노삼성차의 소형 SUV인 QM3도 지난달 719대가 팔렸다.

차급별 판매 비중은 SUV에 이어 중형차(1만6671대) 17.6%, 준중형차(1만6347대)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준중형차 20.3%, 중형차가 17.9%로 준중형차 비중이 높았지만, 큰 차를 찾는 사람이 늘며 1년만에 전세가 역전됐다.

/[illegible]기자

공사감독 법정기준 29%만 배치

LH, 2874명 중 821명… 부실공사 우려

LH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사진)은 5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2014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부실시공 소송 건수는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LH공사는 이 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해 겸임률이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하중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LH공사의 자체감독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외부용역사에 감리용역을 맡겨야 하는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의원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된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illegible]기자

metro motor

세단과 쿠페의 경계를 넘나들다

■BMW 420d 그란 쿠페

하나의 모듈로 여러 차종을 만드는 '통합 모듈'이 전세계 자동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스바겐의 'MQB', 르노·닛산의 'CMF'가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비용에 비해 많은 차종을 만들 수 있고 개발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미 몇 개의 플랫폼으로 수십 개의 차종을 만들어 다양한 고객 취향에 대응하고 있다. BMW는 1개의 생산라인에서 372가지 내장재와 319가지 외장재를 조합해 생산한다. 거리에서 똑같은 차를 만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이번에 소개하는 BMW 420d 그란 쿠페 역시 이런 개념에서 나온 차다. 한국에는 지난 5월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이 차는 BMW 최초의 중형 4도어 쿠페로, 3시리즈 플랫폼을 이용한 모델 중 4시리즈 쿠페와 컨버터블에 이은 세번째 파생차종이다. 3시리즈와 같은 2810㎜의 휠베이스(앞뒤 차축거리)이면서도 앞뒤 트레드(좌우 바퀴 축간거리)는 4시리즈 쿠페 컨버터블과 같다. 그러면서 차체높이는 4시리즈 쿠페(1362㎜)보다 높은 1389㎜로 차별화했다. 제원에서 세단과 쿠페의 경계를 묘하게 넘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겉모습에서는 프레임리스 도어와 6윈도, 리프트백이 눈에 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유리를 내리고 문을 여닫을 때 가장 돋보인다. 길어진 루프라인에 맞게 측면에 쪽유리를 더하면서 시야는 더욱 넓어졌다. 이는 경쟁차인 아우디 A5 스포트백과 같은 구성이다.

▲한 줄 평가: 세단과 쿠페, 쾌간의 장점을 모았다. 가격은 약간 비싸다. '가성비'는 등급 최고다 ▲평점 ★★★★

BMW 최초의 중형 4도어…5230만원 부터 6280만원 까지 가격대 다양

3시리즈 세단이나 4시리즈 쿠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렁크의 활용성이다. 2도어 쿠페보다 35ℓ 늘어난 480ℓ의 트렁크는 뒷좌석을 모두 접으면 1300ℓ까지 늘어난다. 뒤 유리까지 이어진 리프트백 타입의 트렁크 도어는 범퍼 아래에서 발을 움직여 열 수도 있다. 덕분에 스키나 서핑보드, 캠핑장비 등을 싣고 내리기에 편리하다.

뒷좌석 머리 공간(헤드룸)은 3시리즈가 가장 넉넉하고 4시리즈 쿠페는 살짝 비좁은 반면, 그란 쿠페는 쿠페보다 헤드룸이 10㎜ 넓다. 키 180㎝까지는 불편 없이 탈 수 있을 공간이다.

420d는 320d 세단, 420d 쿠페와 같은 2.0ℓ 트윈파워 디젤 터보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38.8㎏·m를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가속시간은 7.5초로 320d보다 0.1초 느리다.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주행감각이다. 3시리즈 세단만큼 안락하면서도 4시리즈 쿠페의 민첩한 핸들링이 절묘하게 조화된 묘한 쾌감을 준다.

BMW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는 평소 앞뒤 구동력을 4:6으로 나누다가 접지력의 변화가 생기면 어느 한 쪽으로 구동력을 몰아줄 수 있다. 또한 고속주행에서는 코스팅 모드가 작동해 지능적으로 연료를 절약한다. 표시연비는 도심 14.1, 고속도로 17.9㎞/ℓ이고, 이번 시승에서는 12.5㎞/ℓ를 기록했다.

BMW 4시리즈 그란 쿠페는 앞서 등장한 아우디 A5 스포트백과 매우 유사한 개념의 차다. 가격대와 성능도 막상막하다. 4시리즈 그란 쿠페는 420i(가솔린)와 420d(디젤), 420d x드라이브 등 3가지로 나오고, 가격은 5230만원부터 6280만원까지 다섯 종류다. 시승차인 420d x드라이브의 가격은 6110만원으로,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320d나 4시리즈 쿠페보다 조금 비싸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가솔린 모델인 420i 그란 쿠페를 고르는 것도 괜찮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中 판매 900만대 돌파

현대·기아차가 중국시장에서 올해 2월 800만대 판매 돌파 후 7개월 만에 900만대를 돌파했다.

올 9월까지 현대·기아차는 베이징현대 81만2399대, 둥펑위에다기아 45만9759대 등 총 127만2158대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9월까지의 누적 판매 116만1276대보다 9.5% 성장한 수치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차종별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아반떼MD(현지명 랑동)가 17만9139대가 팔리며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 베르나와 아반떼HD(현지명 위에둥)가 각각 17만5742대, 10만3915대가 팔리며 뒤를 이었다.

이어 투싼ix(현지명 ix35)와 밍투(사진), 쏘나타가 각각 10만3848대, 9만6221대, 4만9658대가 팔리며 전체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기아차는 K3가 12만6331대 팔리며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고, K2와 스포티지R이 각각 11만462대, 6만8108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현대·기아차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은 중국 자동차 최대 시장인 C차급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UV차급에서의 판매 호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2002년 현지법인 설립 이후 아반떼XD(현지명 '엘란트라'), 아반떼 HD(현지명 '위에둥')가 각각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투입된 아반떼 MD(현지명 랑동)도 연간 판매 20만대를 돌파하며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중형차 시장에 투입된 중국 전용 신차 밍투가 매월 1만대 이상 판매되며 현대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아차의 지난해 중국 판매는 55만대 중 K시리즈(K2, K3, K5)가 전체 판매의 61.4%, 구형 스포티지, 스포티지R이 24.4%를 차지하는 등 주력 차종들이 고속 성장을 이끌며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3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전용 신차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용훈기자

기아차, 獨 '브랜드 콘테스트' 수상

기아차의 디자인 경쟁력이 독일에서 인정받았다.

기아자동차는 프로보 콘셉트카(사진)와 쏘울이 독일의 디자인상인 '자동차 브랜드 콘테스트'에서 자동차 디자인 부문 최고의 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아차 디자인팀은 자동차 디자인팀 부문 최고의 상인 '올해의 팀'을 차지했다.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콘테스트'는 독일 디자인 협회(1953년도 설립)가 수관하는 자동차 부문 디자인상으로, iF, 레드닷과 함께 독일 내 3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기아차의 디자인 경영이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훈기자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엑센트	-	920	970	1,050	1,170
	아반떼MD	1,100	1,210	1,270	1,300	1,430
	i30	960	910	990	1,440	1,750
	YF쏘나타	1,250	1,340	1,470	1,530	1,790
기아	올뉴모닝	-	-	770	810	890
	포르테	540	930	1,030	1,070	1,050
	K5	-	1,480	1,510	1,730	1,750
쉐보레	스파크	-	500	630	730	850
	크루즈		-	1,270	1,330	1,550
르노삼성	뉴SM3	820	950	1,000	1,180	1,380
	QM5	1,410	1,500	1,680	1,940	2,4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현대重 노조 한 발 물러날 때

뉴스룸에서
김 민 준
<경제산업부장>

국내 조선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주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연초 25만3500원이었던 주가가 13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절반 가까이 추락했다. 올해 2분기 1조1037억원의 적자로 창사 이래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4분기 전망도 우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급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노조를 맡은 정병모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민주노총에 재가입시키려고 하는 등 강경 성향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현장관리자들이 노조 조합원을 면담하고, 동향을 분석해 등급을 나눈 문건이 발견됐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측은 통상적인 인사관리 차원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팀원의 개인적인 고민 등도 파악해 업무 능률을 높이려는 팀장의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대다수 노조원은 사측과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한 뜻이 전체 노조원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월 임금협상을 타결한 현대자동차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흑자를 기록한 회사다. 영업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의 속성상 적자 회사와 흑자 회사의 대우가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대중공업이 임금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월차제도 폐지,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을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한 발 물러나 회사와 함께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조만간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식물국회가 이제 150여일 만에 문을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에 질질 끌려 다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회와 명백하게 선을 긋고 등원 결단을 내렸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민생법안을 비롯해 입법활동이 올 스톱 상태였다.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국민 사이에는 국회의원이 불신의 도를 넘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국회해산론'과 '세비 반납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고서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법 합의 후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는 하나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경제 복지 민생 감면관계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종전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단식을 부리며 공방전을 거듭할 경우 아무런 득이 없다.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심의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정기국회 회기 100일 가운데 벌써 한 달을 허송해 버렸다.

지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가 제때에 뒷받침되지 않아 경기부양 시기를 놓친 사례도 적지 않다. 증세와 직결된 예산안은 철야를 해서라도 꼼꼼하게 살펴 심의해야 한다.

이러한 의정활동 이외 이제는 의원다운 의원이 되도록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품위를 지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저질 막말발언은 물론 장내외 농성 폭력 불법 등을 스스로 추방해야 한다.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점은 그동안 정치행보에 따른 성적표라고 보면 된다. 이기에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워 논의만 무성했던 의원 특권도 실질적으로 내려놔야 한다.

그토록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세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편이다. 1인당 GDP대비 세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6배나 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도 3.8%의 세비인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염치없는 일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국민에 진 빚을 갚는 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포토프리즘 서울 하늘 밝히는 불꽃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와 한강의 밤하늘을 불꽃이 수놓고 있다. 이 날 서울 세계불꽃축제에는 한국, 중국, 영국, 이탈리아 4개국 대표 연화팀이 11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올렸다. /손진영기자 son@

현장 중시하는 금감원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분식회계 등 각종 금융사고 수습으로 골머리 앓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향후 검사 방식을 '책상에서 현장'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검사 요원들이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갔다면 카드사의 허위 평가보고서에 속았다가 올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앓는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 점검하지 않았다가 4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하고서야 부랴부랴 방문해 거에 판매 녹취록을 점검해 결국 67%의 불완전판매율을 인정하는 사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 분식회계로 고강도 감리에 들어갔는데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 결과가 함흥차사인 대우건설과 같은 사례도 예방 가능성이 높다.

파생상품 투자비중이 늘며 우려가 높아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몸을 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여기 그뿐인가.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상비율이 평균 15~20%에 그치는 분쟁조정안을 수긍하지 않으면 개별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는 강압적 태도도 사라지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한다'며 서민 울리는 금융업계의 잘못된 업무 관행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닌 민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제재하는 서민 공감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또 다른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원하는 여론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영웅이 지나온 세월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이상우 씨는 승리 요정으로 불린다. 지난 20년 이상 미국 메이저리그 비인기 구단의 대명사 캔자스시티 로얄즈를 응원했다. 지난 8월에는 이 사실이 구단에 알려졌고, 구단은 그를 홈경기에 초청했다. 미국 땅을 밟아 본 적도 없는 그의 응원이 SNS에서 퍼졌고, 캔자스시티 로얄즈는 29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게다가 지구 우승 팀간의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최근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강적 오클랜드를 연장 12회에 제압했다. 이쯤 되니 미국 내 팬들이 이상우 씨의 여권을 빼앗아 계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판이다.

손연재가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조요정에서 체조여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앳된 얼굴의 소녀로 TV에 등장해 체조요정의 존재를 알리며 응원 받았던 세월은 꽤 길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을 때 우리는 환호했고, 2년 뒤 런던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성적표를 확인했을 때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금메달을 딴 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했다. 이제 그녀의 선수 생활은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물론 사회문화 분야의 역사가 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됐다. 그가 외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에세이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존 F 케네디를 만났던 경험이 계기였다. 노벨상 위원회는 그를 두고 기후변화, 핵 확산 방지, 8가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후보 자격으로 삼았다. 또 적극적 정치가는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민감한 국제 이슈를 노련하게 협상해 온 업적도 높이 평가했다. 수상 가능성을 떠나 그의 존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영광이다.

이 시대의 영웅은 그가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영웅이 지나온 세월에 주목한다. 세월의 가치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난관도 이겨낸 불굴의 의지 때문이 아니다. 너무 하고 싶고, 갖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견뎌 냈기 때문이다. 인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영웅이란 칭호가 부끄럽고 낯설다.

슈퍼맨과의 영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슈퍼맨이 재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안다. 이 시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인내로 지켜내는, 갈채 받는 자리에 올랐을 때조차 덤덤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 당신도 나도 가능하다.

/(트렌드씨앤블리 www.li...co.kr) 대표

허리 목 디스크! 고주파로 10분이면 끝!

연예인들이 받는 명품 치료

최근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원로 가수 장미화가 얼마 전 갑자기 악화된 디스크 질환으로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강남조이스병원은 엠넷 '댄싱9 시즌2'의 팀닥터를 맡고 있다.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장미화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갑자기 악화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강남조이스병원에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강남조이스병원 원장은 장미화의 상태를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위치시킨 후 10분 가량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과 신경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수축하면서 제자리를 찾았으며 장미화는 치료 당일 통증이 호전돼 곧바로 퇴원했다. 또 현재 장미화는 방송활동을 무리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장미화 시술 이전에는 국내 최고 보컬인 가수 휘성과 최근 GOD의 멤버로 복귀한 은계상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으며 이들은 큰 문제 없이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사용한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열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강남조이스병원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수 신경치료 기법을 함께 이용해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강남조이스병원은 고주파 열을 이용해 치료하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특수 제작된 주사기를 이용해 디스크 질환의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 치료술도 시행 중이다. 이 치료는 통증과 후유증이 적고 시술 시간이 짧아 시술 후 퇴원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조성태(왼쪽) 강남조이스병원 원장과 가수 장미화.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하고 환자의 질환 나이·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를 실시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중기 이상 또는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고주파 치료나 고주파 특수 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려운 오래된 퇴행성 중기 디스크, 협착이 동반된 디스크 환자들과 수술이 어려운 성인병 환자들에게는 경막외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를 한다.

진단 후 초기·중기 디스크 질환인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치료를 실시한다. 그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와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해 도수 감압·운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02)875-2200·홍대입구역 (02)336-2200·여의도 (02)786-2200·강서 (02)2693-2200

/최재훈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활동

손기정 체육공원서 시설 정비 후 새집 설치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가 지난 2일 전 세계 릴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세계 봉사의 날(Global Day of Service)'을 맞아 서울시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공원 돌보미 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중구청과 체결한 '손기정 체육공원 공원 돌보미(Adopt-a-Park) 협약'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원 조경과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 회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벤치를 추가 설치했으며 직접 제작한 새집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illegible] 기자

인상 결정하는 턱, 기능도 중요

부정교합·돌출입 등 미용·건강에도 악영향

얼굴형을 결정하는 턱은 음식을 씹고 말을 하는 등 기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턱 주걱턱 ▲부정교합 ▲돌출입 등으로 턱에 이상이 생기면 미용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무턱과 주걱턱은 위 아래 턱뼈의 성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무턱은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 덜 성장된 상태고 주걱턱은 그 반대의 경우다. 턱뼈의 모양이 불균형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턱을 내밀거나 밀어넣기 위해 힘을 주게 되면서 턱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진다.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안면비대칭이나 턱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교합은 치아의 맞물림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은 상태다. 턱의 크기에 비해 치아가 커서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거나 공간은 충분한데 치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에게 흔하다. 부정교합이 있으면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치아가 쉽게 마모된다.

돌출입은 얼굴을 옆에서 보았을 때 코 끝이나 턱 끝에 비해 입이 앞으로 튀어 나온 경우다. 선천적인 원인이 많지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손가락이나 입술 등을 빠는 습관이 있으면 돌출입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턱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고 불편을 주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턱 모양의 이상을 미용적인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먹거나 말을 하면서 쉴 새 없이 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창현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턱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일정한 압력을 받는 부위"라며 "턱의 모양이 비정상적이거나 턱의 맞물림이 잘 맞지 않으면 턱 이외에서도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재훈 기자

고령 출산, 임산부 주의사항

철저한 산전 검사·관리로 건강 지켜야

오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하지만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결혼 기피현상으로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이 늘고 있다. 이에 박미혜(사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서 고령 출산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었다.

◆임신 전 건강 체크 먼저

임신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 임신부의 건강 체크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혈액·소변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면역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또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임신 중이라도 태아에게 독감 예방접종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합 감기약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임신 중 약물 복용은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안전하다.

아울러 임신을 하면 시기별로 예정된 검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한 출산을 준비해야 한다. 임신 11~13주가 되면 태아 목 둘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6~18주에는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24주 사이에는 중기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를 자세히 관찰하고 임신성 당뇨병 검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박 교수는 "늦은 나이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병원을 찾아 건강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전문의와 함께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롯데리아, 창립 35주년

원조 빅불 세트 구매시 쿠폰북 증정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1979년 10월 창립 이후 35주년을 맞이해 쿠폰북과 다양한 혜택을 담은 스크래치 카드 제공 등 고객 감사 이벤트를 운영한다.

먼저 롯데리아는 전국 매장에서 '원조 빅불' 단품 혹은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이벤트 사은품을 증정한다. '원조 빅불' 구매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추억의 쿠폰북'을 제공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억의 쿠폰북'을 통해 불고기버거(1600원)·치킨버거(1400원)·양념감자(1300원)·콜라(1000원)·아메리카노(1000원)를 각각 신규 출시 당시 가격으로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세트·콤보 구매객들에게 쉐이크를 300원에 판매한다. 적립회원·제품교환권·모바일쿠폰 구매자에게도 해당된다.

홈서비스 주문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모든 홈서비스 주문객에게는 화이어윙 4조각 또는 치킨휠레 4조각 50% 할인권과 치즈스틱·크런치새우·오징어링·콘샐러드·PET콜라 무료 증정 쿠폰을 제공한다.

화이어윙과 치킨휠레 할인권을 제외한 무료 쿠폰 사용은 1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이 가능하다. PET콜라 쿠폰은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이 가능하다. /양성운기자

착한 짜파게티 농심은 지난 3~5일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2014 인천 중국 문화관광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짜파게티 기부한 생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장에서 관람객이 짜파게티를 구입 후 부스 앞 '사랑의 기부함'에 제품을 넣으면 같은 양의 제품을 더해 판매수익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농심제공

롯데칠성, 'NCSI 음료' 2년 연속 1위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지난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음료 부문 단독 1위 기업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NCSI(국가고객만족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모델로 국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71개 산업,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지수다.

롯데칠성음료는 대표제품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아이시스8.0 등의 영역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웰빙 트렌드에 맞춰 건강음료 닥터&다터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이른 추석에 겨울 준비 서둘러

보온 내의는 작년보다 한 달 먼저 등장

이른 추석의 착시효과로 겨울 준비를 서두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매출을 작년 같은 기간(전년 동요일 9월 20일~10월 3일)과 비교한 결과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계절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매출이 늘어나는 찜이나 탕거리 등 수산물 수요의 경우 최근 2주간 전년 동기보다 64.8% 증가했다.

특히 대표 탕거리 생선인 대구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85.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비롯해 갈치 64.7%, 고등어 58.9% 각각 신장했다. 이로 인해 채료로 쓰이는 채소류인 미나리는 30.9%, 쑥갓은 40.5%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과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표 겨울 과일인 '감귤'의 최근 2주간 매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9% 늘어났다.

계절이 바뀔 때 소비가 늘어나는 침구와 카페트의 경우도 최근 2주간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 차렵이불은 77.4%, 카페트는 20.7% 매출이 신장됐다. 타이즈는 75.6%, 부츠는 342.7% 판매가 늘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의 평균 기온은 높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최근 2주간 평균 기온은 20.7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전년 동요일 기준 9/20~10/3) 보다 0.5도 가량 높다.

최저 기온 역시 올해는 17.0도로 지난해 16.4도보다 높지만 겨울 상품은 작년보다 더 잘 팔리는 형국이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까닭을 이른 추석으로 인한 '추석 착시 효과'로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추석을 가을의 한복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이 끝난 현재 시점은 겨울의 초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추석 착시 효과'를 감안해 지난달 15일 추석이 끝나자마자 기능성 보온 내의인 '울트라히트'의 판매를 시작했다.

내의 판매 시작 시점은 작년보다 한달 반 가량 빠른 것으로, 절기상으로는 올해 추분(9월 23일) 보다 빠른 것이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CJ오쇼핑 US# 발열 슬리퍼

강강술래, 12일까지 신입·경력 공채

신규매장 확대·해외시장 진출 위한 인재 채용

국내 최초·최대 규모 청화백자展 티켓 증정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국내 매장 확대와 사업다각화,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 외식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수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강술래는 2014년 하반기 공개채용으로 마케팅·제품개발·경영지원·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글로벌 시야와 도전정신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12일까지 신입과 경력 공채 지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홈페이지(www.sullai.com)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지원 가능하다.

강강술래는 현재 9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앞세워 내국인은 물론 방한 외국인 관광객 등 매월 30만 명 이상이 찾는 외식명소로 자리잡았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청화 淸華, 그 푸르름에 물들다' 전시회 티켓(1인 4매)도 증정한다.

공예의 최고가 결합된 왕실 미의식의 정수인 조선 청화백자를 살펴보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전시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는 청화백자 명품과 중국 명대의 최고 걸작 영락·선덕연간의 청화백자 등 총 5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정문일기자

미성년 '모바일게임' 소액결제 취소 불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폐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무심코 부모가 이용했던 스마트폰 신용결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고액을 결제해 버리는 피해가 발생해도 환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를 요망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계정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이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지만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일기자

맛있는 원샷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케아, 채용 횡포·규제 회피 꼼수 등 구설수

이미지 타격 우려… 회사 측 "원활한 소통위해 노력할 것"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오픈 전부터 채용 횡포 등의 문제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오는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약 2만6000㎡ 규모로 경기 광명점(사진)을 열 예정이다. 이 매장은 세계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매장 직원 모집과정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점 등록으로 의무휴업 회피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오픈을 앞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풀타임(정규직) 지원자에게 파트타임 등 계약직 전환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명점 구직자들이 오픈한 포털사이트 카페를 보면 풀타임 지원자로 면접에 참여했지만 파트타임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는 사례가 다수 올라와 있다.

또 결과 통보를 늦게하는 한편 급여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부족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해당 카페에는 "담당 매니저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업무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2달을 기다리다 지쳐 메일을 보냈다"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케아 측은 "지원자에게 다양한 직무와 근무시간에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직무와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 등이 달라 지원자 개개인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 중에 있다"며 "채용설명회와 공식 웹사이트 페이지, 현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원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케아 측이 광명점을 '전문점'으로 등록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매장은 가구뿐만 아니라 식품코너·다이소·무인양품 등이 입점될 예정이어서 가구 전문매장 보다는 종합유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골목상권 보호 등의 이유로 의무휴업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815@metroseoul.co.kr

필로소피 '타임 인 어 보틀 세럼', 로라 메르시에 '멀티 비타민 세럼',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파우더 앰플'(왼쪽부터)

'신선한 비타민C' 피부 보약

환절기 떨어진 면역력 피부 트러블의 주범
산화 막기 위해 바로 섞어 쓰는 제품 인기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다. 때문에 환절기에는 피부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때 비타민C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C는 피부 미백은 물론 항산화 기능이 있어 피부 면역 증진에 탁월하다. 하지만 쉽게 산화되고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뷰티업계들이 이런 효능과 단점에 주목, 즉석에서 섞어 바르는 비타민C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필로소피의 '타임 인 어 보틀 세럼'은 주름 기능성을 인정받은 '에이지 디파잉 세럼(이하 세럼)'에 신선한 비타민C8 액티베이터를 바로 부어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이 제품은 세럼과 함께 사용 시 유효 성분을 온전히 전달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준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또한 빛 손상, 오염 물질에 의한 손상인 알킬화, 긴장증연 중금속 산화 등과 같은 피부 손상에 대응해 건강한 피부로 개선한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로라 메르시에의 '멀티 비타민 세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두 개의 용기에 따로 담았다. 사용 시 손바닥에 각각 3~5방울씩 덜어 섞어 바르면 돼 비타민C의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헤라의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파우더 앰플'은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한 파우더와 피부 개선 세럼으로 구성된 미백 앰플이다.

기미를 관리해 피부톤을 개선하고 비타민C성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헤라 측은 설명했다. 비타민C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파우더와 세럼을 분리해 담았으며 펌프를 누르면 파우더가 세럼 쪽으로 이동된다. 이때 파우더와 세럼이 잘 섞이도록 30초간 흔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이지현기자

수제화 느낌의 편안함을 슈즈 브랜드 크록스가 고급스러운 컬러와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편안함을 강화한 신소재 '컬러라이트' 라인을 출시했다. 출시를 기념해 5일 타임스퀘어 영등포점 크록스 콘셉트스토어에서 신제품 소개행사를 가졌다. 크록스가 자체 개발해 독점하게 내놓은 신소재 '컬러라이트'는 가죽 느낌의 고급 수제화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가죽류보다 무게가 훨씬 가볍다. 특히 다양한 컬러를 선보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록스 제공

가을 남성 바지 '색'을 입다

화사한 색상 슬림핏 인기
니트·셔츠와 환상 궁합

올 가을 남성 바지가 '색'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지난 여름 비비드 열풍에서 살짝 벗어나 블루·그레이·네이비·그린·브라운 등 톤 다운된 컬러가 인기다.

패션 관계자들은 "슬림핏의 일자형 컬러 팬츠는 날씬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며 "날씬한 체형이라면 베이지·오렌지·와인과 같은 밝은 색상을, 아닌 경우에는 그레이·네이비 등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은은함이 돋보이는 컬러 팬츠는 가을을 대표하는 아이템인 니트와 셔츠, 재킷 등과 잘 맞아 궁합을 이룬다.

깔끔한 화이트 셔츠와 베이지색 니트, 브라운 재킷 등을 컬러 팬츠와 함께 입으면 포멀한 캐주얼룩이 완성된다. 여기에 스카프와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 단정한 로퍼 등 소품을 활용하면 한결 세련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이 밖에 컬러 팬츠와 잘 어울리는 아이템으로는 클래식한 패턴의 양말, 단색 스니커즈 등이 있다.

/이지현기자

닥스, '120주년' 팝업스토어 오픈

LF(대표 구본걸)가 전개하는 닥스(DAKS)가 브랜드 창립 120주년을 맞아 지난 3일부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12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행운의 룰렛 이벤트로 120개의 선물 상자를 고객에게 증정하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고객들에게 무료 커피·차 등의 음료를 제공한다. 또 영국 근위병 복장의 모델과 함께 하는 포토 존을 체험할 수 있다.

LF 마케팅 이관석 상무는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많은 사랑을 준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12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며 "팝업스토어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브랜드와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영화는 내게 꿈이자 신앙"

결혼 후 첫 방한…좋은 작품 만나 행복
"김태용 감독 만난 건 정말 행운이죠"

황금시대로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탕 웨 이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는 연기를 좋아해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저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건 큰 행운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화는 제게 꿈이자 신앙입니다.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 기쁩니다."

2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다시 찾은 중국 배우 탕웨이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행운"과 "행복"이었다. 한국을 찾을 때마다 늘 환한 미소로 팬들의 사랑에 화답했던 탕웨이였지만 이번만큼은 유난히 더 그 미소가 밝게 느껴졌다.

지난 2일 개막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최고의 스타는 단연 탕웨이였다. 지난 2010년 '만추'와 2011년 '무협'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던 탕웨이는 2012년 제17회 영화제 개막식 사회까지 맡으며 부산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벌써 네 번째 부산 방문이지만 올해 유난히 더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김태용 감독과 결혼 이후 국내에서 가진 첫 공식행사였기 때문이다.

탕웨이는 올해 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선정된 '황금시대'(10월16일 개봉)의 주연 배우로 초청됐다. '황금시대'는 홍콩의 뉴 웨이브를 이끌었던 허안화 감독의 신작으로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한 격동기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류 작가 샤오홍의 일대기를 그렸다. 허안화 감독은 탕웨이의 눈빛과 표정에 매료돼 주인공 샤오홍에 그를 캐스팅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30분 부산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탕웨이는 "영화 촬영을 마친 뒤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 샤오홍과 많은 점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샤오홍처럼 저도 어릴 적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설적인 성격도 닮았고요. 그리고 저도 샤오홍처럼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개구쟁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샤오홍은 글쓰기를 천운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저는 연기를 위한 뒤 배우를 하게 된 것도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어린 시절 집을 나온 샤오홍이 하얼빈으로 이주해 겪은 두 번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홍콩에 건너와 폐병으로 31세에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이야기를 3시간의 러닝타임에 담았다. 샤오홍의 여정을 담기 위해 실제 촬영도 산하이·산시·우한·홍콩·하얼빈 등 중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하얼빈에서의 촬영은 추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탕웨이는 "히터에 발을 녹이다 양말이 타기도 하고 동상을 입기도 했다"며 "하지만 하얼빈에서의 촬영은 모두가 그리워하는 추억이 남은 현장이었다"고 했다.

영화 속 샤오홍은 스스로는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의 격변기에 휘말려 비운의 삶을 살게 된다. 탕웨이도 '색, 계' 이후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탕웨이는 "샤오홍과 달리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건 다행인 것 같다"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작품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탕웨이가 말하는 행복은 배우로서의 행복인 동시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탕웨이는 남편인 김태용 감독을 언급하며 신혼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태용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게 더 큰 행운이다. 영화 쪽으로 더 잘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김태용 감독이 전임교수로 있는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 전문대학원의 영화연기 학술장을 찾아 남편에 대한 내조를 하기도 했다.

탕웨이는 당초 3일 열린 '황금시대' 기자회견에만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막식을 앞두고 급히 일정을 변경해 2일 열린 개막식 레드카펫에 허안화 감독과 함께 올랐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가 탕웨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자 그는 "개막식은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와주셨다는 것, 그리고 같이 영화를 만든 허안화 감독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저는 '황금시대'입니다."

(부산)=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전인권, '슈스케' 명곡에 화답

'걱정말아요 그대' 뒷 이야기 카카오 뮤직에 공개

가수 전인권(사진)이 엠넷 '슈퍼스타K 6'로 화제를 모은 자신의 노래 '걱정말아요 그대'에 대한 뒷 이야기를 밝혔다.

전인권은 최근 카카오 뮤직의 스타 뮤직룸을 오픈하고 '슈퍼스타K 6'에서 참가자 곽진언, 김필이 불러 화제를 모은 노래 '걱정말아요 그대'의 원곡을 게재했다.

전인권은 이 곡에 대해 "십 년 전 즈음이죠. 내가 힘든 시기에 부른 노래라 별로 들은 적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 역시 목소리도 삭고 힘겹지만 그 나름대로 욕심 없이도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밀히 마음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걱정말아요 그대'는 곽진언과 김필이 지난 3일 방송된 '슈퍼스타K 6' 슈퍼위크 라이벌 미션에서 불러 관심을 받은 곡이다. 두 사람이 부른 방송 음원은 이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인기를 모았다.

전인권은 카카오뮤직에 올라온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떠난 이에게 후회 없었다고 말해줘라" "건강합시다. 고마워요" 등의 글을 남기며 짐짓 어린 모습을 보였다.

전인권은 11~12월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전인권밴드 콘서트 2막1장' 서울 공연을 개최한다.

한편 카카오뮤직은 전인권에 앞서 제이슨 므라즈, 신승훈, 이승철, 나얼, 이소라, 잠기하, 리처드 용재 오닐, 다이나믹 듀오 등 인기 뮤지션들이 팬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신개념 음악 서비스다.

/김순호기자

시대 거스르는 90년대 가수의 힘

서태지·김동률 정규앨범 동반 인기

1990년대 가요계는 물론 대중문화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서태지와 김동률이 약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서태지는 5년 만의 새 앨범에 수록될 노래 '소격동'으로 음원차트 정상을 싹쓸이 했다. 20일 정규 9집 '콰이어트 나이트'를 발표하는 서태지는 아이유와 함께 작업한 '소격동'의 음원을 2일 공개했다. 이 곡은 멜론, 벅스, 엠넷, 소리바다,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싸이월드뮤직, 지니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얼터너티브와 메탈 등 강렬한 록 음악을 주로 해 왔던 서태지는 '소격동'에서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를 담아 서태지와아이들 초창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 음악에 시대정신을 투영하는 특유의 색깔도 녹여냈다.

이날 발표한 음원은 아이유가 부른 버전이며, 10일에는 서태지가 부른 또 다른 버전의 '소격동'이 공개된다.

1989년 록 밴드 시나위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서태지는 1992~1995년 서태지와아이들의 리더로 '문화대통령'의 위력을 펼쳤다. 1997년 솔로 데뷔 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음악계를 휩쓸었던 그는 1993년생의 후배 가수 아이유와 작업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음악 결과물을 내놨다.

또 서태지는 4일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해피투게더3'(9일 방송) 녹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신비주의 스타의 대명사인 서태지는 5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수이자 남편, 아빠로서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률은 6집 '동행'을 발표해 타이틀곡 '그게 나야'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김동률은 이번 앨범을 발표하고도 어떤 홍보 활동 없이 콘서트만 개최한다.

'2014 김동률 전국투어 콘서트 '동행''은 다음달 1일 부산을 시작으로 9개 도시에서 열린다. 1차 티켓 예매에서 성남 공연은 2분 만에 매진됐다. 2차 티켓 판매에서는 고양 공연이 매진됐고, 부산·광주·전주 공연도 매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8일 오후 8시에는 서울 공연 티켓 판매가 시작돼 치열한 예매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공연은 12월 12~14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김동률은 남성 듀오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로 데뷔했다. 1997년까지 전람회로 활동한 그는 1998년 솔로로 전환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매 앨범마다 히트곡을 쏟아낸 김동률은 이적과 함께한 '카니발', 이상순과 결성한 '베란다프로젝트' 등으로 세월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음악을 발표해 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적 '거짓말…' 만든 배경은

'히든싱어'서 공개 뭉클한 감동 주며 우승

'히든싱어'에 출연한 이적(사진)이 자신의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4일 방송된 JTBC '히든싱어 시즌3'(이하 '히든싱어')에서는 이적이 출연해 모창 능력자들과 대결을 펼쳤다.

이날 '히든싱어' 마지막 라운드에 앞서 이적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에 대해 "불과 몇 십 년 전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적은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마저 버리는 일이 있었던 때 유난히 유원지에 사람이 많은 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환하는 건 다 사주고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온다. 그때 버림받은 아이는 어떤 마음인지를 노래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노래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히든싱어'에서 이적은 세월호 사건 이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불렀는데 그때는 노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마음이 아팠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히든싱어'에서 이적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사진=JTBC

FT아일랜드 첫 번안 앨범 발표

해외 인기 입증 멤버 자작곡 수록

FT아일랜드(사진)가 해외에서 인정받은 음악성과 대중성을 국내에도 알린다.

이들은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번안 앨범 '올 어바웃'을 6일 출시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프리덤'을 비롯해 보컬 이홍기가 한국어 작사를 한 '사이님은', 베이시스트 이재진의 작사·작곡한 '비러브드', 이홍기의 자작곡 '온 마이 웨이'와 '오렌지색 하늘'이 담겼다.

리더 최종훈과 이재진이 가사를 만든 '비 프리'와 이홍기가 작사한 '뷰티풀', 이재진의 자작곡 '모닝커피', 최종훈의 자작곡 '라스트 러브 송', '스테이' 등 10곡이 앨범에 수록됐다.

'올 어바웃'은 FT아일랜드 일본 발표곡 중 10곡을 엄선해 멤버들이 직접 한국어로 번안한 음반이자 데뷔 이래 첫 번안 앨범이라는 점에서 정식 발매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이번 앨범은 FT아일랜드의 폭 넓은 세계를 잘 보여주는 음악들로 알차게 채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라드를 넘어 FT아일랜드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다양한 음악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앨범의 수록곡은 오프라인 발매에 앞서 4일 음원으로 출시돼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순호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호연
10월 27일 {월} 저녁 8시 tvN 1화 방송 * 매주 {월~목} 방송

영화로 하나 된 해운대 여유로운 축제

관객·시민·영화인 부산에서 뜨거운 만남의 시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 비프빌리지. /연합뉴스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가을 해운대는 영화로 하나가 됐다. 지난 2일 개막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객과 시민들, 그리고 영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매년 반복됐던 논란과 이슈는 없었다. 대신 그곳엔 축제를 즐기는 여유가 있었다.

◆ 노출대신 우아함 빛난 개막식

올해 개막식은 한 마디로 우아했다. 매년 논란이 됐던 낯 뜨거운 노출은 만날 수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개막식 레드카펫에서의 노출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왔다. 스타들의 노출 경쟁이 영화제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올해 영화제는 초청작 중심으로 영화인들을 초청하는 등 개막식 분위기 개선을 위한 변화를 꾀했다.

영화제 측의 뜻을 반영한 듯 배우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럼에도 개막식은 변함없이 화려했다. 정우성·김희애·엄정화·조민수·유지태·박해일·구혜선·유연석·조정석·이하늬·윤계상·김새론·이솜·임지연 등 국내 스타들이 참석해 영화제를 빛냈다. 특히 정우성과 이솜은 블랙으로 맞춘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답게 해외 스타들도 레드카펫을 수놓았다. 중국의 탕웨이와 일본의 아사노 타다노부·나카이도 루미·미우라 하루마, 오스트레일리아의 테레사 팔머, 이탈리아의 아시아 아르젠토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과 한국의 문소리가 맡아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뽐냈다.

◆ 스타와 팬의 뜨거운 만남

영화제는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보기 힘든 배우들과 가까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3일 오후 4시에는 '배우'로 부산을 찾은 배우 박유천이 오픈토크를 했다. '배우의 탄생, 박유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야외 행사에는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유천은 "'해무'를 통해 영화의 매력을 느끼게 됐다. 연기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줬다"며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아이돌 가수로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솔직히 힘들다"며 "내가 연기를 꼭 해야만 하는지 대중이 그 필요성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있다"고 배우로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유연석은 영화 '제보자'의 임순례 감독, 박해일과 함께 야외무대인사로 팬들과 만났다. 고향이 진주인 유연석은 경상도 사투리로 인사말을 전해 환호를 받았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신민아·조정석, '자유의 언덕'의 문소리·김의성·카세 료, '우아한 거짓말'의 김희애·김향기 등도 무대인사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무대인사 중인 배우 신민아, 임찬상 감독, 조정석(왼쪽부터). /부산국제영화제

◆ 끝나지 않는 영화인들의 밤

해운대의 밤은 영화인들의 몫이다. 해운대 인근 포장마차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영화인을 영화제 동안 흔하게 볼 수 있었다.

3일 저녁에는 영화 '국제시장'의 미디어데이와 배급사 NEW의 파티가 열렸다. '국제시장' 미디어데이에서는 윤제균 감독과 황정민이 나왔다. 황정민과 같은 소속사인 후배 배우 강하늘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해운대의 한 펍에서 진행된 NEW의 파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영화인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변호인'을 만든 위더스필름 최재원 대표와 배우 김영애가 등장하자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4일 저녁에는 쇼박스·롯데엔터테인먼트·CJ엔터테인먼트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김윤석·강동원·안성기·최민식 등이 곳곳을 누벼 시민을 즐겁게 했다. 쇼박스가 배급하는 '암살'(감독 최동훈)·'사도'(감독 이준익),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서부전선'(감독 천성일), CJ엔터테인먼트의 '베테랑'(감독 류승완)·'쎄시봉'(감독 김현석) 등 내년 기대작들의 영상과 촬영현장도 함께 공개됐다.

/부산=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개막식에 참석한 배우 김새론. /손진영기자

여배우 감독이 되다

여성 정체성·여배우 고민 풀어내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감독으로 변신한 여배우들도 있었다. 이탈리아 배우 아시아 아르젠토, 그리고 한국의 구혜선과 문소리가 그 주인공들이다.

아시아 아르젠토는 이탈리아 호러 영화의 거장인 다리오 아르젠토의 딸로 잘 알려진 배우다. 9세 때 아버지가 연출한 영화에 출연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는 '랜드 오브 데드' '라스트 데이즈' '미스트리스' 등의 영화로 소개됐다.

지난 3일 오후 4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만난 그는 "배우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직업이었다"며 "어릴 때부터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영화를 배우면서 연출에서의 즐거움이 더 커 감독을 하게 됐다"고 감독이 된 이유를 밝혔다.

월드 시네마 부문에 초청된 '아리아'는 아시아 아르젠토가 10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이혼한 부모 사이를 오가는 9세 소녀 아리아의 성장담을 그렸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는 "아이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라며 "어른과는 다른 아이들만의 진정한 순수함을 영화로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비디오게임처럼 빠른 화면으로만 만들어지는 요즘 영화들과 달리 아이를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어머니와 딸의 갈등을 그린 '다우더'로 부산을 찾았다. 지난 3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분수광장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서 구혜선은 "서른 살이 넘은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친구들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문소리는 자신이 주연과 연출을 도맡은 단편영화 '여배우'를 영화제에서 첫 공개했다. 캐스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배우가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 남자 제작자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겪는 해프닝을 통해 여배우로 하지 못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 문소리는 개막식 사회는 물론 출연작 '관능의 법칙'과 '자유의 언덕', 연출작 '여배우' 관련 행사까지 참석하며 영화제 기간 중 가장 바쁜 행보를 보였다.

/부산=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日 대표 배우-차세대 유망주의 만남

'내 남자' 아사노-니카이도 BIFF 방문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의 창' 부문에 초청된 '내 남자'는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아사노 타다노부와 앞으로의 일본영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배우 니카이도 후미가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나오키상을 수상한 소설가 사쿠라바 가즈키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소녀와 그녀를 딸처럼 키워온 한 남자 사이에서 피어오른 사랑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을 그렸다. 주연 배우 아사노 타다노부와 니카이도 후미, 그리고 구마키리 가즈요시 감독을 지난 3일 오후 12시 부산 월석아트홀에서 만났다.

아사노 타다노부는 일본영화 팬들에게는 '아시아의 조니 뎁'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배우다. 90년대 후반부터 배우로 활동해온 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미이케 다카시, 구로사와 기요시, 기타노 다케시 등 유명 감독들과 작업하며 폭넓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박물섬'과 '토르' 시리즈 등 할리우드 작품에도 출연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작품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상업영화가 주로 들어오기도 한다. 특별한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안받는 작품들 중 마음이 맞는 것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니카이도 후미는 국내에는 '두더지'와 '지옥이 뭐가 나빠'로 소개됐다. 올해 영화제에는 '내 남자'와 '갈증' 두 편이 초청됐다. 1994년생인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복잡한 내면을 지닌 캐릭터를 주로 연기하며 일본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우 아사노 타다노부(오른쪽)과 니카이도 후미 /손진영기자

그는 "캐릭터보다 작품이 마음에 들면 고른다"며 "그 동안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에만 출연해 걱정이 들기도 한다. 평범한 여자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내면을 지닌 캐릭터에 특별히 끌리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배우는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아사노 타다노부는 "개막식 끝나고 만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같이 작품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한국영화에 생각보다 빨리 출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니카이도 후미는 "한국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다. 3일 전 대학교 가을학기가 시작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장병호기자

김동호 위원장 佛 최고훈장 받아

김동호(사진 오른쪽) 부산국제영화제(BIFF) 명예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장을 수훈했다.

전수식은 2일 저녁 11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리셉션 행사에서 진행됐다.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가 참여해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에게 훈장을 직접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 영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 영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데 힘을 보탰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좀 더 고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년이 한불 수교 130주년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강화를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이번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부산=장병호기자

류현진 "역전 드라마 첨병에 서라"

디비전시리즈 1-1…3차전 선발 막중 임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류현진(27)을 위한 포스트시즌 역전 드라마를 준비했다.

다저스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 우완 에이스 잭 그레인키의 투타 맹활약에 힘입어 3-2 승리를 거뒀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승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고, 3차전 다저스 선발 류현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그레인키는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7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석에서 3타수 2안타 1득점했고, 누상에서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까지 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전날 지구 최강 투수 클레이턴 커쇼를 선발로 내세우고도 9-10으로 패한 다저스는 이날 전력을 다해 상대에 맞섰다. 그레인키는 3회 타석에서 번트 동작을 취하다 강공으로 전환해 우익수 앞 안타를 뽑았고, 애드리언 곤살레스의 안타 때 홈을 밟았다.

그레인키는 5회 1사 후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고든의 중전 안타 때 3루까지 내달리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도달했다. 다저스는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그레인키의 적극적인 주루는 다저스 더그아웃 분위기를 들끓게 했다.

다저스는 8회 등판한 J.P. 하월이 맷 카펜터에게 동점 투런포를 허용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8회 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맷 켐프가 좌월 솔로포를 날리며 승부를 다저스 쪽으로 돌렸다. 다저스 마무리 켄리 얀선이 9회초를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시리즈 전적 1-1로 맞선 가운데 적지로 이동하게 된 다저스는 류현진의 어깨에 희망을 걸고 있다. 류현진은 부상으로 20일이 넘는 공백기를 보냈고, 7일 열릴 3차전에 선발로 복귀한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팔 쉼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류현진은 꽤 오랜 시간을 쉬어도 잘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 결승 홈런을 친 맷 켐프가 경기 후 인터뷰 도중 팀 동료 야시엘 푸이그에게 물 세례를 받고 있다. /AP 뉴시스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와의 정규리그 경기에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씩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8일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는 부시스타디움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해 7이닝 1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해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쾌투하는 등 모두 7이닝을 소화하며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류현진은 "지난 번 왼 어깨 부상 후 복귀했을 때보다 몸 상태가 좋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또 다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경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6시간 23분의 연장 18회 혈투를 역전극으로 마무리하며 2연승을 거뒀다. 경기 시간 6시간 23분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최장 경기 기록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루키' 이미림 LPGA 시즌 2승

세계랭킹 1위 루이스에 역전 우승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을 챙겼다.

이미림은 5일 중국 베이징 인근 레인우드 파인밸리 골프클럽(파73·6596야드)에서 열린 레인우드 LPGA 클래식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더해 4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7타로 캐롤라인 헤드월(스웨덴·13언더파 279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8월 마이어 클래식에서 박인비(26·KB금융그룹)를 연장전에서 꺾고 LPGA 투어 첫 승을 신고한 이미림은 2개월도 안 돼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인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헤드월에 2타 뒤진 공동 3위였던 이미림은 마지막 날 침착한 경쟁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루키' 답지 않은 이미림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날도 빛났다. 17번 홀(파3)에서 이미림은 티샷이 그린 왼쪽 워터해저드 가장자리의 바위에 걸리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바위에서 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이미림은 10m가 넘는 파 퍼트를 성공시키며 헤드월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이미림은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렸지만 무사히 탈출한 데 이어 버디 퍼트까지 넣으며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박인비는 마지막 날 2타를 줄여 최종합계 12언더파 280타로 장혜지(24), 브리타니 린(미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PS의 사나이' 일본서 명성 이어갈까

오승환, 11일 클라이맥스 시리즈서 활약 기대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이 일본에서도 포스트시즌 사나이의 명성을 떨친다.

오승환은 11일 시작하는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일본 프로야구 클라이맥스 시리즈 퍼스트스테이지에 출전한다. 일본 진출 첫해 39세이브로 종전 선동열(38세이브·현 KIA 타이거스 감독)을 제치고 한국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운 오승환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다짐했다.

그는 5일 일본 산케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전은 '단 한 경기도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포스트시즌 모든 경기에서 평소보다 활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오승환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면서 포스트시즌 28경기에 등판해 2승 3패 13세이브 평균자책점 1.29를 기록했다.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역대 최다 세이브 1위 기록이다.

산케이스포츠는 "오승환이 두 차례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2005·2011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에서 한 경기 5이닝(2차전 두산 베어스전)을 던지기도 했다"며 "오승환은 큰 경기에 강하고 책임감도 있다"고 전했다.

큰 경기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입증한 오승환은 이번 시리즈에서 팀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정규리그보다 더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는 정규시즌 막판 5경기 연속 등판하며 한신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서는 '긴 이닝 소화'로 팀을 도울 생각이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5일

■잠실

넥센	000	030	001	4
LG	000	031	001	5

승=봉중근 패=손승락

■문학

한화	020	000	100	3
SK	200	130	00X	6

■광주

삼성	050	000	400	9
KIA	000	101	120	5

■마산

두산	001	001	100	3
NC	101	001	20X	5

수원 슈퍼매치 3연패 탈출

서울에 1-0 K리그 2위 올라

수원 삼성이 FC서울과의 슈퍼매치 3연패에서 벗어났다.

수원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로저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서울에 1-0 승리를 거뒀다. 수원은 서울과 지난해 11월 원정경기, 올해 4월 홈경기, 7월 원정경기에서 패했으나 이날 경기에서 연패를 벗어났다.

또 승점 54를 기록하며 포항 스틸러스(52점)를 제치고 전북 현대(59점)에 이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서울은 승점 43으로 6위에 머물렀다.

전반 7분 수원 로저의 슛, 27분 서울 김진규의 헤딩, 후반 7분 에벨톤의 단독 드리블 등 결정적인 찬스가 골로 이어지지 않으며 양팀은 0-0의 공방을 이어갔다. 골은 수원의 몸날 플레이에서 터졌다.

중원에서 날아온 볼을 잡은 염기훈이 후반 8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로저는 골문으로 쇄도하며 강력한 헤딩 슈팅을 시도했으며 볼은 김용대가 손을 쓸 새도 없이 서울 골망에 꽂혔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5일

서울	0	1	수원

득점=로저(후8분·수원)

포항	0	0	부산

경남	1	0	상주